

기혼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 유형에 관한 사례 연구*

-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f Husbands' Housework Type*

- focused on dual-earner couples -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
인간생활환경연구소 연구원 조성은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 문숙재

Ewha Womans University, College of Home Science and Management
Human Ecology Environmental Institute *Researcher* : Seong-Eun Cho
Consumer Science & Human Development *Prof.* : Sook-Jae, Moon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IV. 결과 및 분석 |
| II. 선행연구의 고찰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Korean family is changing. The growth in dual-earner households has been the 'revolution' of the century, implying inevitable modification of the role division in marriage toward greater symmetry of responsibility for breadwinning and homemaking.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husbands' housework and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the husbands' housework. This means to investigate how the husband is related to housework. For these research purpose, 60 dual-earner couples were deeply interviewed. The major discussion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There are four types of housework in men's work, the type of refusal, the type of avoidance, the type of inevitability, and the type of participation. These types are taken in order to understand change in household work. Men in the type of refusal in household work is 42% in couples. They think that housework is women's work. Men in the type of avoidance in household work is 25%, they have a tendency to avoid housework with making any excuses. People in the type of inevitability is 20%. These men are compelled to work in household owing to circumstances beyond control. 13% of couples is type of participation. These have a new idea of housework. They don't get the gender role division. They can become a good husband. and eventually solve conflicts and problems in couples.

* 본 연구는 조성은(1998)의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에서 일부 발췌한 것임.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980년대까지 한국의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때 주요 관심은 주부들의 가사노동 만족도, 가사노동 시간과 량,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주부들의 기대와 평가등으로 대부분 여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였다. 때로 남성들의 가사노동이 연구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가사노동 분담 연구의 한 부분으로만 다루어졌을 뿐이다. 즉 남편이외에도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기타 동거하는 여성들(시누이, 여자형제), 성인 자녀(딸), 고용인의 노동이 함께 다루어짐으로써 결국 여성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다. 또한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다루어졌다 할지라도 남성이 연구의 주대상이기 보다는 주부가 평가하는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정도를 다루는데 그치고 있었다.

이렇게 남성이 가사노동 연구에서 제외되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산업사회와 함께 시작된 노동의 성별분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분담은 산업화 초기의 남성과 여성의 노동 분리 결과 나타난 새로운 가족관계로 인해 더욱 합리화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성별 분리 현상은 최근까지 그대로 이어져 남성의 가사노동이 학문적 주제에서 멀어지게 한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남편은 가정 밖 일터에서의 노동, 아내는 가정 내 노동이라는 극단적으로 분업화된 가족 유형은 오늘날 여성들의 취업 증가로 인하여 크게 도전을 받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1996)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48.3%)은 미국(59.3%)과 일본(50.2%)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계속되는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동아일보, 1996년 7월 26일). 또한 산업화 초기 여성 취업의 대부분은 미혼여성이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기혼여성의 참가율이 미혼여성보다 높아져 맞벌이 부부의 증가 속도가 가속화 되고 있다. 이는 미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985년의 41.7%에서 1995년의 45.1%로 증가했음에 비해 기혼여성은 같

은 기간중 41.0%에서 47.3%로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1989년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다(노동 통계연감, 1985, 1995). 이러한 현상은 남성조직을 모방하는 소수집단으로 나타나던 여성들의 취업이, 이제 여성 교육의 증가로 인해 취업에 대한 '선택 가능성'이 증대하면서(조혜정, 1983), 대졸이상의 여성들이 평생직을 택하는 것을 당당한 하나의 선택으로 여기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로 인해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여성들의 새로운 역할부담의 증가로 인해 여성들의 가사노동 역할 과중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남성들에게도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즉 여성들이 취업을 하게 됨으로써 늘어난 노동 부담을 남성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사노동의 주 담당자는 여성이며 남성의 가사노동에는 큰 변화가 없고 이 문제는 아직도 맞벌이 부부간에 심각한 갈등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역할과중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남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남성들의 가사노동을 이해하고 그들의 가사노동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가사노동 분담에서 부부의 역할균형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에서 성별 분리 노동이 갖는 모순점의 개선을 위하여 현재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남성의 가사노동에도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부부간의 가사노동에서의 역할 균형을 이루어지게 하여 그동안의 불공평한 부부 역할 구조를 평등한 부부 역할 구조로 바꾸어 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 유형별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 유형별 참여
 율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 유형별 참여
 영역은 어떠한가?

이러한 시도는 현재 부부간의 불균형적인 역할구
 조를 평등한 역할 구조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노력
 이며, 이제까지 여성만이 해왔던 가사노동에서 남성
 이 함께 하는 가사노동으로 가족의 역할 구조를 바
 꾸기 위한 시도가 될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남

성과 여성 및 가족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가족 평등성을 실현함으로써 성평등적인 사회
 를 낳게 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남성의 가사노동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 연구에서는 남성의 가사노동

<표 1> 기혼남성의 1일 평균 가사노동 시간

(단위: 시간·분)

년도	연구자	시간	시간 산출 방법
1975	윤복자	0.35	가정부 있는 경우: $\{(평일 가사노동시간 \times 5) + (주말 가사노동시간 \times 2)\} \div 7 = \{(0.24 \times 5) + (0.42 \times 2)\} \div 7 = 0.29 = A$ 가정부 없는 경우: $\{(평일 가사노동시간 \times 5) + (주말 가사노동시간 \times 2)\} \div 7 = \{(0.30 \times 5) + (1.06 \times 2)\} \div 7 = 0.40 = B$ 남편의 1일 가사노동시간 = $(A + B) \div 2 = (0.29 + 0.40) \div 2 = 0.35$
1984	이정수	1.40	$\{(평일 가사노동시간 \times 5) + (주말 가사노동시간 \times 2)\} \div 7 = \{(0.49 \times 5) + (3.48 \times 2)\} \div 7 = 1.40$
1985	이정수 고경애	1.42	$\{(평일 가사노동시간 \times 5) + (주말 가사노동시간 \times 2)\} \div 7 = \{(1.12 \times 5) + (2.57 \times 2)\} \div 7 = 1.42$
1991	문숙재	0.59	$\{(\남편이 평가한 평일 가사노동시간 \times 5) + (\남편이 평가한 주말 가사노동시간 \times 2)\} \div 7 = \{(0.42 \times 5) + (1.41 \times 2)\} \div 7 = 0.59$
1992	박만자	1.19	$(\남편들의 1주일간의 평균 가사노동 시간 \div 7) = (9.12 \div 7) = 1.19$
1994	이기영 이승미	0.34	$\{(평일 가사노동시간 \times 6) + 일요일 가사노동시간\} \div 7 = \{(0.21 \times 6) + 1.52\} \div 7 = 0.34$
1994	이기영 김외숙 서창원 이승미	0.33	$(\취업주부 남편의 평일가사노동시간 + 비취업주부 남편의 평일가사노동시간) \div 2 = (0.21 + 0.20) \div 2 = 0.205 = A$ $(\취업주부 남편의 토요일 가사노동시간 + 비취업주부 남편의 토요일 가사노동시간) \div 2 = (0.58 + 0.43) \div 2 = 0.505 = B$ $(\취업주부 남편의 일요일 가사노동시간 + 비취업주부 남편의 일요일 가사노동시간) \div 2 = (1.38 + 0.58) \div 2 = 1.18 = C$ $\{(A \times 5) + B + C\} \div 7 = \{(0.205 \times 5) + 0.505 + 1.18\} \div 7 = 0.33$
1994	박주희	3.28	남편들의 주당 과제별 가사노동 시간(식사 및 도시락 준비+설거지+빨래+다림질, 바느질 및 옷정리+집안청소+육외(자동차) 청소 및 수리+자녀양육+자녀 교육 및 훈육(대화)+장보기) $\div 7 = (1.18 + 0.54 + 0.54 + 0.36 + 1.54 + 2.12 + 6.42 + 8.00 + 1.48) \div 7 = 3.28$
1996	신소영	0.36	$\{(\하류층 여성형과업시간 + 하류층 자녀양육시간) + (중류층 여성형과업시간 + 중류층 자녀양육시간)\} \div 2 = \{(0.08 + 0.20) + (0.21 + 0.23)\} \div 2 = 0.36$
1996	최수선	0.37	$\{(평일 가사노동시간 \times 5) + 토요일 가사노동시간 + 일요일 가사노동시간\} \div 7 = \{(0.20 \times 5) + 0.49 + 1.48\} \div 7 = 0.37$
1996	홍윤정	1.50	$\{(평일 가사노동시간 \times 5) + (휴일 가사노동시간 \times 2)\} \div 7 = \{(1.16 \times 5) + (3.08 \times 2)\} \div 7 = 1.50$
1996	권혜연	1.55	$\{(평일 가사노동시간 \times 5) + (휴일 가사노동시간 \times 2)\} \div 7 = \{(1.20 \times 5) + (3.24 \times 2)\} \div 7 = 1.55$
1996	조미환	2.29	$\{(평일 가사노동시간 \times 5) + (휴일 가사노동시간 \times 2)\} \div 7 = \{(1.54 \times 5) + (3.59 \times 2)\} \div 7 = 2.29$

실태를 파악하려 할 때 가장 객관적인 측정도구인 시간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 물론 책임 소재 여부로 남성의 가사노동을 연구하기도 하였지만 이것은 시간이라는 도구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가사노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 결과를 살펴보고 그 결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유형을 연구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시간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의 불변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측정된 것은 윤복자(1975)의 연구를 시작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제까지 다양한 주제와 관련하여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측정되어 왔으며 그동안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보면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남성의 1일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최소 33분(이기영외, 1994)에서 최대 3시간 28분(박주희, 1994)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연구의 시기, 조사대상과 조사방법(자기보고법, 시간일지기록, 아내에 의한 계산), 조사지역, 조사된 가사노동의 영역에 따라 나타난 차이이다. 이 시간들은 최대 3시간 가량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일관적으로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시간상의 차이는 방법상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조사방법, 조사영역, 조사시기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남성의 가사노동에서 나타난 약 3시간 가량의 차이가 설명되지 않는 못하였다. 따라서 이제까지 행해진 시간연구들간의 결과를 가지고 시간량을 비교하여 60년대와 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추이나 변화를 잡아내기는 어려웠다. 그렇다면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양적인 연구가 갖는 방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른 연구 방법을 통한 연구의 시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시간 연구를 통해 나타났던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아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시대불변의 결과는 연구자들의 남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연구 관심을 약해지게 만들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결국 Walker와 Woods(1976)에 의해서도 지적되었듯이 취업주부의 과중한 노동 경험을 낳게 했고, 새로운 변화를 위한 방안 제시에 한계가 되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여성들은 과중한 역할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취업주부는 비취업주부에 비해 가사노동시간을 줄였다 할지라도 취업에 할당할 시간이 추가되면 그들의 남편보다 전체적으로 노동을 더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부부간의 역할 불균형은 더욱 심각한 갈등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재 남성의 가사노동 실태와 그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찾아 남성을 가사노동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불공평한 부부 역할 구조를 평등한 부부 역할 구조로 바꾸어 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가사노동 시간 연구가 아직까지는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에서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데 실패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994년 8월부터 1996년 11월까지 서울 및 주변도시에 거주하는 60쌍의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때 연령 분포를 고르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표집대상을 조정하였다. 소개 받은 조사 대상들자와의 최초의 면접은 1994년 8월에 시작되었다. 면접을 시작할 당시에는 구체적인 연구 문제가 구상되지 않았으므로 질문할 내용이 막연한 상태였다. 따라서 처음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까지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물어보던 질문 문항과 가사노동 종류에 따른 참여 여부를 질문할 몇 개의 문항을 작성하였다. 처음 피조사대상자와 대면할 때부터 면접내용은 모두 녹음하였다. 면접 시간은 2시간 40분 가량이었으며 모든 내용이 녹음되었다.

첫날의 면접은 모두 필사본으로 만들어진 후 질문지 조사에서 다룰 수 없었던 응답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알고 싶어하던 내용에 대한 응답이 충분한지, 그리고 미처 연구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응답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질문문항이 만들어졌고 이것은 다시 새로운 두 가정을 방문할 때 처음 면접 내용에 추가되었다.

이렇게 모아진 세 가정의 면접 내용은 세밀히 분석되었다. 이때 연구자는 세 가정에서 서로 다른 응답이 나온 질문과 모두 같은 응답이 나온 질문에 유의하였다. 그리고 세 가정만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쓴다고 가정 한 후 면접자료들을 여러 각도로 분류(Grouping) 해보았다. 이것은 면접과 양적인 연구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 질문내용이 구성되었다. 질문내용에는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일반적인 사항, 부부의 일상적인 하루 일과와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로 하는 일, 남성이 집안에서 주로 맡아 하는 일과 아내가 주로 하는 일, 어렸을 적 부모의 가사노동 형태, 자신의 특이한 경험등이 포함되었다. 이때 포함된 질문 내용들은 앞의 세 가정을 대상으로 했을 때 남편의 가사노동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요인들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미 면접을 한 세 가정의 부부를 포함하여 1996년 11월 까지 모두 60쌍의 부부를 면접하였다. 이때 면접대상은 갓 결혼해서 자녀가 없는 부부부터 이미 자식들이 다 20세 이상의 성인인 된 딸이 부부를 고루 포함시켰다. 또한 면접을 보다 성공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사노동의 직접적인 수행 장소인 집으로 연구자가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한편 부부가 같이 사는 현장을 관찰했다면 더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관찰을 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가정생활에 대한 관찰은 제 3자인 연구자의 존재로 인해 일상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관찰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으므로 면접 자료만을 분석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이때 수집된 면접 자료중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아내의 남편에 대한 가사노동 참여 요구의 유무, 가사노동 영역(자녀돌보기, 청소, 빨래, 설거지, 음식만들기)에 따른 참여유무, 아내 및 남편이

평가한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율(%)은 SAS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는데 이용되었다.

IV. 결과 및 분석

1. 조사 대상자의 특성

조사된 면접대상 60쌍중 남편의 경우 20대 7명, 30대 24명, 40대 10명, 50대 19명으로 조사할 당시를 기준으로 남성들의 연령은 26~59세의 분포였으며 평균 40.77세였다. 교육수준은 고졸과 대졸이 가장 많아 고졸 37%, 대졸 50%로 나타났으나,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도 3%가량 있었다. 자녀수는 0~3명사이로 평균 1.4명꼴이었다. 막내자녀의 연령은 1~24세의 분포로 평균 13세였다. 또한 이들의 직업은 대기업의 영업사원, 관리직 사원, 정육점 경영, 학원원장, 공무원, 교사등으로 다양하였으며, 소득은 65만원에서 450만원 사이로 평균 151만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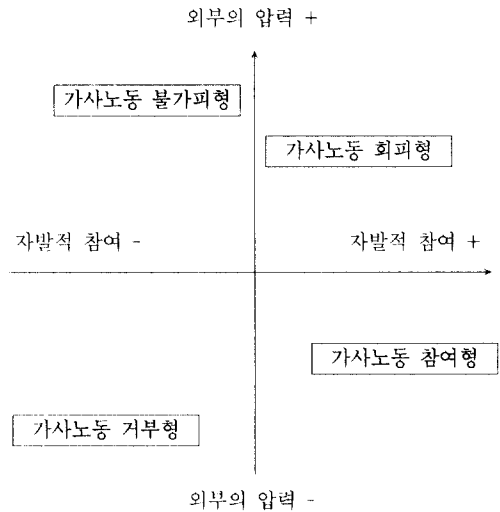
한편 아내의 경우는 20대 18명, 30대 16명, 40대 16명, 50대 10명으로 여자들의 연령은 24~54세의 분포였으며 평균 37.9세였다. 이것은 남성에 비해 약 3세 가량 낮은 연령이다. 여성들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고졸(30%)과 대졸(37%)이 가장 많았으나 남성의 중졸 이하 학력이 5%인데 반해 여성의 경우는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18.3%). 또한 조사된 여성들의 직업은 회사원, 교사, 봉제공, 간호사, 임상병리사, 디자이너, 가게 운영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들의 평균 소득은 120만원 정도로, 남성에 비해 약 30만원정도 낮은 수준이었다.

2.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 유형

60쌍의 면접 사례들을 중심으로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 실태를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가사노동 참여에 따른 유형을 분류한 결과 크게 4가지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형 분류시 주된 기준은 남편에게 주어지는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외부적 압력과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서 나타나는 자발성 정도였다. 면접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를 달라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외부적 압력과 자발성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기준으로 남성의 가사노동 유형을 분류하여 보았다. 이때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외부적 압력이라는 요인이 강력한 요인으로 선택된 이유는 면접내용중에 “아내가 해달라고 하므로” 등의 아내의 요구, “아내가 일찍 출근해 버리면 늦게 나가는 내가 아이를 맡겨야만 하므로” 등의 아내의 취업시간 구조, “아내가 좀 약하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합니다”라는 아내의 병, 허약 상태, “아내가 밥을 할 경우 난 아이를 봐야죠”라는 미취학자녀의 존재등이 남편들에게는 모두 가사노동을 하게 하는 외부적 압력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사노동 참여에서 나타나는 자발성 정도는 남성들이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자신이 가사노동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지와 가사노동 참여 의사는 없지만 강요에 의해 강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를 살펴본 것이다. 이때 “할 수 없이 한다”, “어쩔 수 없죠”라는 등의 표현이 쓰인 경우는 자발적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제가 해야죠”, “그건 남자일이에요”, “서로 도와가며 하는 게 마땅하죠”라는 표현을 통해 가사노동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는 자발적인 참여인 것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남성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할 경우라도 자발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자발성 정도를 남성의 가사노동 분담에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이와 같이 크게 두 요인을 중심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가 높고 외부적 압력이 적으면 가사노동 참여형, 자발적 참여의사가 어느정도 있으나 외부적 압력이 주어질 때 주로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가사노동 회피형, 외부적 압력이 매우 높아 가사노동 참여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며, 따라서 가사노동에 참여해야만 하는 외부적 압력이 사라질 경우 가사노동 참여를 하지않는 경우는 가사노동 불가피형, 그리고 가사노동을 해야하는 외부적 압력



〈그림 1〉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유형

도 적게 받고 자발적 참여 의사도 없는 유형은 가사노동 거부형이라 명명하였다. 이때 외부적 압력과 가사노동 참여에서의 자발성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면 〈그림 1〉과 같다.

이때 그림에서 자발적 참여 정도와 외부적 압력 정도에 따라 각 유형의 위치를 달리 표시하였다. 즉 자발적 참여는 가사노동 참여형, 가사노동 회피형, 가사노동 불가피형, 가사노동 거부형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부적 압력은 가사노동 불가피형이 가장 높게 가사노동 거부형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때, 외부의 압력이 낮고 가사노동에 대한 참여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집단은 가사노동 거부형, 반대로 외부의 압력이 비교적 낮으나 자발적으로 가사노동 참여가 높은 집단은 가사노동 참여형이라 하였다. 다음 외부의 압력이 비교적 높고 가사노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가 제한된 영역에서만 다소 이루어지는 집단은 가사노동 회피형, 외부의 압력이 가장 강하고 압력에 의해 할 수 없이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은 가사노동 불가피형이라 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가사노동 유형에서 가사노동 거부형은 25사례(42%)로 네 개의 유형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은 가사노동 회피형

(25%), 가사노동 불가피형(20%), 가사노동 참여형(13%) 순이었다.

3. 유형별 조사대상자의 특성

가사노동 유형을 분류한 결과 가사노동 참여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유형은 가사노동 불가피형과 참여형이었으며, 비교적 낮은 유형은 가사노동 거부형과 회피형이었다. 이때 각 유형별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우선 유형별 남편의 연령 분포를 살펴본 결과 각 유형별로 살펴볼 때 가사 노동 거부형은 4.50대가 가장 많았고, 회피형은 30대, 불가피형은 2,30대, 참여형은 30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남편들의 평균 연령도 가사노동 거부형 45.2세, 회피형 39.7세, 불가피형 37.5세, 참여형 35.7세로 가사노동 거부형으로 분류된 남성들의 연령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은 남성에 비해 연령이 낮은 남

<표 2> 유형별 조사대상자의 특성

(N=60)

대상자의 특성		가사노동 참여유형		가사노동 거부형		가사노동 회피형		가사노동 불가피형		가사노동 참여형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남편의 연령 (세)	20대	0	0	2	13	4	33	1	12.5	7	12		
	30대	8	32	7	47	5	42	4	50	24	40		
	40대	7	28	2	13	0	0	1	12.5	10	17		
	50대	10	40	4	27	3	25	2	25	19	32		
	평 균	45.2		39.7		37.5		35.7		40.77			
아내의 연령 (세)	20대	4	16	5	33	6	50	3	37.5	18	30		
	30대	6	24	4	27	3	25	3	37.5	16	27		
	40대	10	40	3	20	1	8	2	25	16	27		
	50대	5	20	3	20	2	17	0	0	10	17		
	평 균	41.3		36.9		35.4		33.6		37.9			
남편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17	68	5	33	1	8	2	25	25	42		
	대졸이상	8	32	10	67	11	92	6	75	35	58		
아내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18	72	7	47	2	17	2	25	29	48		
	대졸이상	7	28	8	53	10	83	6	75	31	52		
남편의 직업	자영업	8	32	3	20	1	8	1	13	13	22		
	비자영업	17	68	12	80	11	92	7	87	47	78		
아내의 직업	자영업	9	36	3	20	5	42	1	13	18	30		
	비자영업	16	64	12	80	7	58	7	87	42	70		
미취학 자녀	있다	7	28	8	53	9	75	5	63	29	48		
	없다	18	72	7	47	3	25	3	37	31	52		
남편의 소득 (만원)	100이하	7	28	4	27	1	8	2	25	14	23		
	100-150	12	48	6	40	8	67	4	50	30	50		
	150이상	6	24	5	33	3	25	2	25	16	27		
	평 균	160		144		141		149		151			
아내의 소득 (만원)	100이하	14	56	11	73	6	50	2	25	33	55		
	100-150	9	36	3	20	1	8	4	50	17	28		
	150이상	2	8	1	7	5	42	2	25	10	17		
	평 균	119		102		140		122		120			

성들이 성역할 분리에 대한 의식이 약하고 성평등에 대한 교육경험이 더 많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아내의 연령도 마찬가지로의 경향으로 가사노동 거부형 아내의 평균연령은 41.3세, 회피형은 36.9세, 불가피형은 35.4세, 참여형은 33.6세였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가 낮고 연령이 낮을수록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남편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 25명중 17명이 가사노동 거부형에 속해 있었으며, 아내의 경우도 고졸이하 29명중 18명의 남편이 가사노동 거부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다.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또한 남편과 아내의 직업이 자영업일 경우 가사노동 거부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남편과 아내의 직업의 경우 6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이었으므로 직종에 따른 차이를 알기에는 개인적인 차이가 많이 반영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영업과 비자영업을 비교해 보았다. 이때 직업분류를 자영업과 비자영업으로 분류해본 이유는 자영업은 주로 부부가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집이 가깝거나 멀거나와 상관없이 부부가 동시에 일을 해야 할 경우 여성이 가사노동 능력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남편이 사업장을 지키고 여성이 가사노동을 하러 들어가는 성역할에 따른 전통적인 분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미취학 자녀가 없는 경우(32명) 가사노동 거부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18명). 그렇다면 남편의 교육수준이 고졸이하 일 경우 가사노동 거부형이기 쉽고 맞벌이 중에서도 남편이 자영업일 경우 가사노동 거부형이 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취학 자녀의 존재가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남편의 소득은 가사노동 거부형이 평균 160만원, 회피형이 144만원, 불가피형이 141만원, 참여형이 149만원으로 거부형의 평균소득이 가장 높았다. 이것은 거부형을 제외하고 회피형, 불가피형, 참여형 간에 소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소득에 따라 가사노동 참여 정도는 뚜렷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가사노동 참여 거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때 가사노동 분담에서 소득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원임을 일부 지지해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지지는 아내의 소득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아내의 경우 거부형이 평균 119만원, 회피형이 102만원, 불가피형이 140만원, 참여형이 122만원으로 남편의 가사노동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는 불가피형과 참여형에서 아내의 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아내의 소득이 높을수록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가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것은 과거 아내의 소득이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를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했던 선행연구 결과에 비추어

〈표 3〉 부부간의 소득차에 따른 가사노동 참여 유형

(N=60)

가사노동 참여유형		가사노동 거부형		가사노동 회피형		가사노동 불가피형		가사노동 참여형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득 차	아내가 더 많이 버는 경우	0	0	0	0	4	33	3	38	7	12
	부부 소득이 똑같은 경우 (부부가 함께 자영업을 하고 있는 9사례 포함)	9	36	4	27	1	8	0	0	14	23
	남편이 10~50만원 더 버는 경우	11	44	4	27	5	42	4	50	24	40
	남편이 50만원이상 더 버는 경우	5	20	7	46	2	17	1	12	15	25

볼 때 아주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것은 부부간의 상대적 소득차를 살펴보면 더욱 뚜렷해진다.<표 3>

그 결과 흥미롭게도 아내가 남편보다 소득이 더 많은 7 사례의 경우 모두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가사노동 불가피형과 참여형에 속해 있었다. 반면 남편이 아내보다 더 많이 버는 경우(39 사례)는 가사노동 거부형과 회피형이 불가피형과 참여형에 비해 더 많이 나타나 상대적 소득차가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에 중요한 변수라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최수선, 1996; 신소영, 1996). 이같은 결과는 자원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자원을 적게 가진 사람에게 권력을 행사하여 가사노동을 안할 수 있다는 가사노동의 상대적 자원 가설이 과거와 달리 오늘날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되는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과거 취업여성이 소득에 의해 자원을 행사하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아내의 높은 소득, 특히 남편보다 높은 소득은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것은 과거와는 달리 취업여성의 소득이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과거와 달리 여성에 대한 의식과 여성 취업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로 인해 여성이 남편보다 더 높은 소득을 갖는 것이 숨겨져나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줄어들음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부부의 소득이 똑같은 경우(14 사례)에는

대부분 가사노동 거부형과 회피형(13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것은 본 연구에서 부부가 같이 자영업을 할 경우 부부의 소득을 한달 총소득을 2로 나누어 똑같이 산정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4. 유형별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율

본 연구에서 면접 사례를 중심으로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 유형을 살펴본 결과 4가지 유형이 확인되었다. 이때 각 유형별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정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한 가정에서 부부가 하는 일을 100%로 하였을 때 남성과 아내가 각각 자신과 남편에 대해 평가한 비율을 가지고 각 유형을 비교해 보았다<표 4>. 이때 가사노동 참여율은 모든 유형에서 아내에 비해 남편이 평가한 평균이 높게 나타났지만 유형에 따른 특이한 차이는 없었다.

남편이 평가한 자신의 가사노동 참여율과 아내가 평가한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율은 모두 가사노동 거부형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회피형, 불가피형, 참여형순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가사노동 거부형과 회피형간에 집단간 차이는 없었고, 가사노동 불가피형과 참여형간에도 마찬가지로였다. 따라서 가사노동 불가피형과 참여형은 가사노동 참여가 비교적 높은 집단으로 가사노동 거부형과 회피형은 가사노동 참여가 낮은 집단으로 볼 수 있다(남편, $F=13.08^{***}$, 아내, $F=16.75^{***}$, $*** P<.001$).

<표 4> 유형별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율 차이

(N=60)

가사노동 참여유형	빈도(%)	남편이 평가한 자신의 가사노동 참여율(%)		아내가 평가한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율(%)	
		평균	Duncan's Test	평균	Duncan's Test
가사노동 거부형	25(41)	17.2	A	11.8	A
가사노동 회피형	15(25)	22.3	A	17.0	A
가사노동 불가피형	12(20)	32.9	B	28.8	B
가사노동 참여형	8(13)	39.4	B	33.8	B
F 값		13.08***		16.75***	

*** P<.001.

5. 유형별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영역

가사노동 참여 유형에 따라 가사노동 참여 영역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각 가정마다 행해지는 가사노동 영역이 다르고, 수행방법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비교적 모든 가정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중 남성들의 참여여부에 따른 영역별 차이가 있었다. 각 가정마다 수행되는 가사노동 영역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자녀 돌보기, 빨래, 청소, 음식만들기, 설거지만을 중심으로 유형에 따른 참여 여부를 비교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그 결과 제시된 5개 영역중 남성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영역은 청소였으며, 자녀돌보기, 설거지, 빨래가 비슷한 참여를 보이고, 음식 만들기 참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례에서 어린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가족원 돌보기(특히 가족의 비신체적인 돌보기 시간)와 주생활 영역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며, 반대로 식생활영역의 참여가 가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최수선, 1996; 조미환, 1996). 이같은 영역별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서의 차이는 영역 자체가 갖는 성별 의식과 관련이 있다. 즉 여성적인 과업으로 인식되는 영역일수록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사노동 거부형에 비해 참여정도가 높은 가사노동 회피형은 가능한한 여성적인 과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이지 않은 과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부적 압력이 높아 가사노동 참여가 보다 높아진 가사노동 불가피형의 경우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하에서는 여성적 과업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사노동 참여형의 경우는 성별의식에 의한 가사노동 영역 분리가 아닌 능력이나 선호에 따른 분리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때도 물론 남성들이 여성적인 과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비율에 비해 낮게 나타났지만 가사노동에 대한 성별 분리 의식에서 보다 자유로움을 보여준 가사노동 참여형의 경우 성별에 의한 분리는 아니었음이 특이한 사항이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에서 성별 분리 노동이 갖는 모순점의 개선을 위하여 현재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그 안에서 일고 있는 변화를 찾아내고 남성을 가사노동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60쌍의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하였다.

<표 5> 유형별 가사노동 참여영역

(N=60)

가사노동영역	가사노동 참여유형	가사노동 거부형		가사노동 회피형		가사노동 불가피형		가사노동 참여형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자녀 돌보기	안한다	13	65	8	67	2	33	1	25	24	57
	한다	7	35	4	33	4	67	3	75	18	43
청 소	안한다	20	80	1	7	1	8	1	13	23	38
	한다	5	20	14	93	11	92	7	87	37	62
빨 래	안한다	24	96	9	60	5	42	2	25	40	66
	한다	1	4	6	40	7	58	6	75	20	34
설거지	안한다	24	96	13	87	3	25	2	25	42	70
	한다	1	4	2	13	9	75	6	75	18	30
음 식 만들기	안한다	25	100	15	100	6	50	2	25	48	80
	한다	0	0	0	0	6	50	6	75	12	20

그 결과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 유형은 가사노동 거부형, 가사노동 회피형, 가사노동 불가피형, 가사노동 참여형 등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가사노동 거부형은 사례의 42%로 '가사노동은 여자의 일이고 내 일이 아니다'라는 전통적인 성별 분업관념을 강하게 나타내면서 가사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아내들은 남편의 강한 거부로 인해 가사노동의 분담을 체념한 상태이며 가사노동 분담의 심각한 역할 불균형에 대한 심한 불만과 스트레스를 나타내고 있었다. 면접 사례의 25%로 나타난 가사노동 회피형은 가사노동에 대한 전통적인 성별 분리 의식이 약해졌으나 가사노동 참여에서의 변화는 거의 없는 집단이었다. 이 유형은 여성적인 가사노동 참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소극적인 가사노동 참여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핑계를 대고 가사노동을 안하러 하였다. 가사노동 불가피형은 면접 사례의 20%로 가사노동에 대한 전통적인 성별 분리 의식이 남아있지만, 외부적인 압력 때문에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집단이었다. 따라서 가사노동을 해야 하는 외적인 압력이 사라지면 가사노동을 하지 않으려 하므로, 다른 유형에 비해 아내의 요구와 불만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들은 다른 남자들에 비해 가사노동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으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면접 사례의 13%인 가사노동 참여형은 가사노동에 대한 전통적인 성별 분리 의식이 거의 사라지고 가사노동 참여가 어느정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이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간에는 철저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서로 눈치를 보며 일을 미루거나 부부간의 표준을 맞추어야 하는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이 유형별로 보면 가사노동 불가피형과 참여형은 가사노동 참여가 높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아내의 소득이 남편보다 높을 경우 남편들은 가사노동 불가피형이나 참여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아내의 소득이 남편에게 가사노동 참여를 가능케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거부형, 회피형, 불가

피형, 참여형 순으로 아내의 소득이 높아지고 있어 아내의 소득이 과거와는 달리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여성 취업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인식의 변화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라 사료되며 권력 자원가설을 지지할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여성의 소득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원으로 작용하는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또한 아내의 요구에 따른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외부적인 압력은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만한 사실은 면접 사례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는 고정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즉 같은 사람일지라도 여러 유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가 량과 질에서 계속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는 여성 소득의 증가, 아내의 요구, 사회적 성역할 태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아 변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변화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를 보다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한다면 이것은 부부간의 평등한 역할 구조를 이루게 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부부간의 부부간의 토론과 타협, 서로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맞벌이 부부간의 가사노동 분담과 관련된 갈등은 아직까지는 전체 사회구조적인 틀내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개별가정의 갈등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 가정에서의 많은 노력은 전체 사회구조와 의식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다 평등한 사회를 지향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는 가정과 사회의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뿐 아니라 남성자신의 결혼에 대한 만족감의 향상을 통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자신에게도 혜택이 있음을 본 연구의 가사노동 참여형의 남성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는 가정내의 과업도 과거처럼 성별에 의한 분리에서 벗어나 능력과 선호에 따른 분리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작게는 맞벌이 부부간

의 역할 균형상태를 이루게 할 수 있으며 크게는 21 세기가 지향하는 평등한 사회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공미혜(1994). 과연 남성은 변하고 있는가?-도시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에 관한 의식변화와 참여-. 『부산여자대학교 여성연구』, 5, 123-142.
- 2) 권혜연(1996).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영향요인-가족생활주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3) 노동통계연감(1988, 1995). 노동부
- 4) 문숙재(1982). 가사노동의 가치와 평가에 대한 고찰. 『대안가정학회지』, 제20권 제4호, 174-184.
- 5) 문숙재(1991).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285-302.
- 6) 문숙재·조성은(1995).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방법론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139-150.
- 7) 박언주(1996). 가사노동을 둘러싼 부부갈등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8) 신소영(1996). 계층별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연구-자원이론, 시간 가용설 가설, 성 역할 가설을 적용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9) 이기영·김희숙·서창원·이승미(1994).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안가정학회지』, 32(1), 31-46.
- 10) 이정수(1984).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안가정학회지』, 22(2), 103-132.
- 11) 이정수·고경애(1985).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안가정학회지』, 23(2).
- 12) 이정우(1972). 가족성원간 가사분담에 관한 연구. 『대안가정학회지』, 10(2).
- 13) 조미환(1996).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14) 조성은(1991).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15) 조혜정(1983). 성공적인 다역할 수행에서 역할 나누어 갖기로. 『여성연구』, 1(1), 68-81.
- 16) 조혜정(1988).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 문학과 지성사.
- 17) 최수선(1995).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18) 한국여성개발원(1986).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기혼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140-141.
- 19) 홍윤정(1996). 부부간 가사노동 분담과 공평성 인지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20) 홍은정(1995). 부부의 성역할분리에 관한 연구-기혼남성의 가족생활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21) G. 김별(1988). 『평등한 부부』. 한국여성개발원(역).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22)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1991). *Work and Family: Educational Implications*, 242-252.
- 23) Barnett, R. C., Marshall, N. L., and Pleck, J. H.(1992). Men's multiple role and their relationship to men's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2), 358-367.
- 24) Berk, S. F. and A. Shih(1980). *Women and household labor*. Contributions to household labor: Comparing wives' and husbands' reports. S. F. Berk(ed.), Sage publications, 191-227.
- 25) Blair, S. E. & Lichter, D. T.(1991). Measuring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Journal of Family Issues*, 12(1), 91-113.
- 26) Blood, R., and D. Wolfe(1960). *Husbands and wives*. New York: Free Press.
- 27) Bryant, K., and Y. Wang(1990). Time together, time apart: An analysis of wives' solitary time and shared time with spouses. *Lifestyles Family*

- and *Economic Issues*, 11, 89-119.
- 28) Ferree, M. M.(1991). The gender division of labor in two-earner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12, 158-180.
- 29) Haas, L.(1989). Role-sharing couples: A study of egalitarian marriages. *Family Relations*, 29, 289-296.
- 30) Hunt, J. G. and L. L. Hunt(1987). *Families and Work*, Male Resistance to Role Symmetry in Dual-Earner Households: Three Alternative Explanations. Gerstel, N. and H. E. Gross(Eds.), Temple University Press, Philadelphia, 192-203.
- 31) Manke, B., B. L. Seery, C. Couter, and S. M. Mchale(1994). The three of domestic labor: Mother', father', and children's weekend and weekend hous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6, 657-668.
- 32) Mederer, H. J.(1993). Division of labor in two-earner homes: Task accomplish versus household management as critical variables in perceptions about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February), 133-145.
- 33) Pina, D. L. and V. L. Bengtson(1993).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d Wives' Happiness: Ideology, Employment, and Perceptions of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901-912.
- 34) Pleck, Joseph H.(1985). *Working Wives/Working Husbands*, Published in cooperation with th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Beverly Hills, London, New Delhi : Sage Publications.
- 35) Ward, Russell A.(1993). Marital Happiness and Household Equity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May), 427-438.
- 36) Wheeler, C. L., and R. D. Arvey(1981).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the famil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september), 10-20.
- 37) Yogev, S., and H. Brett(1985). Perceptions of the Division of Housework and Child Care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August), 609-618.